

## ■ 최신 해외정보 - 미얀마 ■

### 미얀마에 대한 전세계적 제재 완화 흐름

미국 정부는 4월 17일 비정부기구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적, 종교적,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미 정부는 미얀마에 일부 투자와 금융서비스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대부분 해제한 것입니다.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은 4월 23일 무기수출을 제외한 미얀마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유예기간 동안 미얀마의 개혁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할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대 미얀마 투자금지, 광물·금속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자산동결,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등이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4월 24일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대부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의 수준에 맞추어 제재의 폭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4월 16일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밥 카 외무장관은 호주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 완화는 최근 아세안과 유럽 각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1988년 군사정부 이후로 미얀마와 교류를 끊었던 일본이 4월 19일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얀마에 대한 채권을 일부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아사히신문), 그 액수는 3,000억 엔(4조 1,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 이외에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인프라 정비를 위해 6,000억 엔(8조 4,000억 원)을 원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 완화의 흐름은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을 환호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쟁력 있는 인건비 및 천혜의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 중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을 앞다투고 있는 것에 비해, 자신들의 제재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력 확장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 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의 제재 완화의 이면에는 미얀마가 중국의 동남아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도 자신들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쌓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 국회는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4월 24일에 국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 완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안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